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국가보훈처	보 도 자 료		든든한 보훈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7쪽
배포 일시	2021. 7. 21.(수)	담당 부서	공훈관리과
담당 과장	김석기 (☏044-202-5770)	담당자	송현숙 (☏044-202-5772)

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심의 결과, '변동 없음' 결정

□ 국가보훈처(처장 황기철)는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**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,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**하였다.

○ 제기된 의혹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**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,**

○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(이하 검증위)는 회의를 개최하여 **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**하였다.

□ 검증위는 지난해 11월에도, 김근수·전월선 선생의 서훈 공적 논란에 대하여 심의하여 "변동 없음"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, **최근 언론 등에서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의 신원 관련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로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증**을 하였다.

□ 이번 **검증에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다음 세 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확인**하였다.

①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

②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은 김원웅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과 다른

인물이라는 의혹

③ 김원웅 회장의 모친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을 한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

□ 먼저, 검증위는 독립운동 당시 '김석(왕석), 전월순(전희)'라는 이명으로 활동한 김근수·전월선 선생의 **「공적 부문」**에 있어서 **당사자 진술과 생존지사 증언에 의존한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**가 있었지만, **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**하였으며,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.

○ 『외사월보』 제11권(일본 내무성 경보국 외사과, 1944)에 따르면 "(조선)의용대로부터 광복군 투합(投合) 분자(전원 등재)"로서 **전월순(全月順), 왕석(王碩)**이 나오고

○ 「섬서지구 한교거류 정황적 함령(1940.5~1942.5)」에서도 "**김석**(金石)이 '성별 남, 연령 30, 1935년 중국 도착, 西安 2府街 公 4號 거주, **한국광복군 직원**"으로 기재되어 있다.

※ 김석(金石)과 왕석(王碩)이 동일인임을 장＊＊(대통령장) 선생 등의 인우보증을 통해 확인

○ 『한국임시정부직원기권속교민명책』(1945.12.8.)과 「임시정부 지원 요청 공문 및 중경 한인명부」(1944.9.17.)에는 **"王碩 家屬으로 전희(全熹), 왕원웅(王元雄) 또는 왕석(王石), 전희(全喜), 왕원웅(王元雄)"**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.

○ 최근의 자료이기는 하나 『독립운동사 제6권(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, 1975)』과 『한국광복군명단』(한국광복군동지회, 1977)에서도 이 분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.

⇒ 검증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"김석 또는 왕석, 전월순 또는 전희"가 **조선의용대, 한국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.**

□ **또한, 『김근수 선생이 김석 또는 왕석, 전월선 선생이 전월순 또는 전희』인지에 대해,** 검증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**동일인으로 판단**하였다.

○ 김근수 선생은『외사월보(2017년 수집)』,「섬서지구 한교거류 정황적 함령(2001년 수집)」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전인 **1963년에 김근수(김석)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되었다.**

○『한국임시정부직원기권속교민명책』,「임시정부 지원요청 공문 및 중경 한인명부」,「교통부전국선박조배위원회고(1946.1.10.발송)」에 따르면 **왕석, 전희, 왕원웅이 한 가족으로** 확인된다.

○ 당시 **생존 애국지사**(김근수 9명, 전월선 5명)들이 김근수·전월선 선생이 **이명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음을 보증**하였다.

※ 장＊＊(대통령장), 조＊＊(독립장), 안＊＊(독립장), 채＊＊(독립장) 등의 인우보증서에서 김석(金石), 왕석(王碩)이 김근수 선생의 이명임을 보증

※ 김＊＊(독립장), 박＊＊(독립장), 신＊＊(애국장), 유＊＊(애국장) 등의 인우보증서에서 전월순(全月順)이 전월선 선생의 이명임을 보증

⇒ 검증위는 **독립운동가들이 이명을 많이 사용한 점,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한 다수의 애국지사들이 이분들의 독립운동을 인정**한 점, 최근 입수한 **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애국지사들의 인우보증 내용을 뒷받침**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**기존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**하였다.

□ 다음으로 김근수 선생의 신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, **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**하였으며,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.

① ‘63년 서훈시 ‘작고’ 표기 관련

○ 1963년 공적조서에 **‘作故’**로 기재되어 있으며, 포상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(8.14) **‘故 金根洙(金石),** 동아일보(8.14) 기사에서도 **‘金根洙(金石) (同)’**으로 각각 확인되어 **포상된 분은 이미 사망**하

였기 때문에 김원웅 회장**의 부친이 아니라는 문제제기 관련이다.**

○ 하지만 1963년 포상된 분의 공적조서상 주소와 김원웅 회장 부친의 **1962년 주민등록표 주소가 '대현동 산 18'**로 **동일하고, 마포구 일대에 1962년 이전에 사망한 동명의 김근수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,**

- '63년 상훈기록부상 김근수 선생과 김원웅 회장 부친의 생년월일(1912.9.27.)이 동일한 점,

- **'68년 재심사부터는 "작고"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**

- '63.8월 서훈 당시, **'사망'**으로 보도되었으나 **생존해 있던 사례가 더 있다는 점**(2명)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⇒ 검증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**'63년 당시 포상된 김근수 선생**은 **생존해 있었고, 김원웅 회장의 부친이 맞는 것으로** 판단하였으며, '작고' 표기는 행정상 오류일 것으로 추정하였다.

② 독립유공 신청 3년 전 사망한 인사의 인우보증 문제

○ 인우보증인 중 안＊＊, 장＊＊선생의 경우에 김원웅 회장 부친의 **'77년 재심사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인우보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**되었다.

○ 안＊＊선생과 장＊＊ 선생의 인우보증서는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아 **정확한 작성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우나,** 당시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고려할 때, **이분들이 생존시에 증언한** 것으로 보인다.

※ 안＊＊ 선생 경우,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주소(서대문구 연희동 498)는 선생이 1968. 10. 20.까지 거주한 주소(이후 서대문구 성산동 572번지의 88로 전입)로, 최소한 1968.10월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

※ 장＊＊ 선생 경우, 인우보증서는 1966년「공적서」상 본인의 주소(성북구 정릉동 338의 2)와 동일한 점, 1974년 성북구 정릉동(정릉동 385)에서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할 때, 1974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

□ 김원웅 회장의 모친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가인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,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.

① 실제 독립운동은 언니 전월순 님이 했다는 의혹

○ 호주 전＊＊(전월선의 父)님의 제적부에서 **2녀 ' 全月順'**, **3녀 ' 全月善'** 이 각각 확인되어 **2女의 공적이 아니냐**는 의혹이 제기되었다.

○ 이에 김원웅 회장 모친의 친언니로 추정되는 분의 자녀를 접촉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, 언니 '전월순' 님과는 **한자 및 부모 이름, 생몰년월일, 본적 및 본관**이 **모두 다른 점을 발견하고**

- 김원웅 회장 모친의 친언니로 추정되는 전월순 님의 부친 전＊＊의 제적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, **"자료 없음"으로 회신되어** 전＊＊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하였다.

- 한편, 김원웅 회장 모친의 **동생**과 **' 전월순'** 님 자녀 등이 언니 **' 전월순' 님이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**

· 지난 7월 중순 경 두 사람(김원웅 회장 모친의 여동생과 친언니로 추정되는 분의 아들)에 대한 **유전자 검사**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, **' 동일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음 '** 이라는 회신을 받았다.

※ "동일모계임이 배제되지 않음"이란 동일 모계 혈족이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하고, 두 분의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검사됨

- 또한, 언니 **전월순(田月順)** 님은 독립운동을 한 전월선(**全月善**) 선생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39~1945년에 **자녀 3명**을 **경기 김포군**에서 **출생·신고**한 것을 확인하였고,

※ 1녀 1938년생, 1남 1940년생, 2녀 1945년생, 김포에서 출생신고('42~45년)

- 언니 전월순의 자녀들은 모친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서는 “모른다”며, 1957년 경 모친이 외가에 갔을 때 “연락이 없어서 사망한 줄 알았다. 자기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”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.

⇒ 검증위는 당시의 **시대상황** 등을 감안할 때, **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**, 전월순 님의 **거주 지역, 출산시기** 등으로 미루어볼 때 **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**하였다.

② 창씨개명할 당시가 독립운동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

○ 1940.12.19. **’전월선’** 님, **’전월순’** 님, **’전＊＊’** 님이 각각 개명한 것이 확인되었으며, 이는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.

○ 하지만, 당시 개명은 제적부상 **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**되고

- 1940.4.5.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**’개명신청은 한집 사람이면 신청서 한 장에 해도 무방하다’**고 보도된 바 있다.

⇒ 검증위는 개명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들의 거주지역을 고려할 때, 상주지원의 개명 허가에 따라 호주인 父 전＊＊ 님이 **일괄적으로 신청**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.

□ 추가로, 금일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입장도 밝힌다.

○ 보도 요지는 **‘전월순’이란 분이 2명일 수 있으므로 모계혈통이 같다는 것만으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**, 김근수 선생의 개명 전 이름인 **‘김차돌’ 관련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는**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.

- 첫째, **전월선 선생의 모계 2대 선조(외할머니)의 제적부까지 확**

인하였으나, 모계 후손 중 '전월순'이라는 동명이인은 없었습니다. 다른 근거가 제시 된다면 추가 확인하겠다.

- 둘째, **'김차돌'이라는 이름은 독립운동사에 찾을 수 없는 인물이고, 김근수 선생의 개명전 이름이 '김차돌'이라는 사실은 본 사안과 관련성이 크지 않습니다.** 김석(또는 왕석)이라는 인물이 광복군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가 김원웅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임을 이번에 검증한 것이다.

□ 국가보훈처는 **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포상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.**

〈끝〉